

전시를 보며

Visiting 'the Japanese house' exhibition

글. 임형남 · 본지 편집위원

지난 달, 9월 어느 주말에 주택 설계를 많이 하는 건축사사무소 소장 몇 명과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짧은 일정으로 도쿄에 갔습니다. 그때는 한가위와 국경일이 끼어있는 열흘이나 되는 황금연휴를 앞둔 주말이어서 그런지 무척 한산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2시간 만에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고, 전철로 도쿄 황궁 근처에 있는 국립근대미술관까지 갔습니다. 비가 예보됐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우리가 도착할 무렵에는 거의 개어서 적당히 쾌적한 주말 도쿄의 풍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불만만 전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시는 <일본의 집, 日本の家>라는 주제의 전시인데, 1945년 이후 일본 현대 건축이 만들어낸 주택들을 13개의 주제로 모아놓은 대형 전시였습니다.

일본성, 프로토타입의 대량생산, 주택은 예술이다, 유희성, 감각적 변용 등의 카테고리로 일본스럽게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게 기획하고 모아놓은 도면과 모형이 준비했습니다. 아련하게 기억나는 추억의 건축사 단계를 겐조로 부터 시작해서 안도 다다오, 이토 토요, 아틀리에 바우와우, 수 후지모토까지 아주 많은 건축사들의 작업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먼 거리를 무리하게 달려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쾌적하고 영양가 높은 전시였습니다.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물론 건축 종사자로 보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건축의 소비자 즉, 일반인들로 보이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찬찬히 구경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일본에서 건축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무척 높은 편이고, 건축에 대한 이해도 단순히 화보에 나오는 좋은 집 정도의 이해가 아니고 평면과 단면을 이해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반인들이 모여 평면을 연구하는 모임도 있고 가끔씩 평면 경연대회를 열어서 서로 우열을 가리기도 합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르죠. 언젠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힘들이 모여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6팀 7명이나 배출한 일본 건축의 저력이 된 것이겠죠.

그러나 굳이 욕에 티를 말하자면 13개의 카테고리에 제가 생각하는 일본 건축의 원동력이 빠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건축의 힘은 유명한 건축사와 세계적인 스케일의 건축물의 비중이 크겠지만,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서 활동하는 동네 건축사들이 만들어낸 준수한 동네 집들, 화려하거나 비싼 재료를 쓰지는 않았지만 건축사의 고민을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집들이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네 건축사들이 잘 살아있고 그 건축사의 설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고, 대부분의 일본 건축을 담당하며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과 자부심이 일본 건축을 그렇게 올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들어갔더라면 훨씬 입체적인 전시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를 보며 몇 년 전 건축사협회 50주년 기념 단행본을 만들 때 한 자리 참여해 '건축사지를 통해 본 한국 주택 50년'라는 꽤 많은 분량의 원고를 썼던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그때는 덕분에 50년의 세월 동안 건축사지에 게재됐던 모든 주택을 하나씩 찬찬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 무척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이 어떤 과정을 밟아 오늘에까지 이렀는지를 알게 됐고 앞으로의 방향도 대강 저울질 해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도 아쉬웠던 점은 그렇게 유명한 건축사의 작업이나 큰 집들 말고 국민 대부분이 사는 동네의 집들의 모습, 혹은 동네 건축사들의 작업들에 대한 기록을 만나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가지가 풍성해지며 알찬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 건축의 기반도 '무명'의 동네 건축사들이 건강하게 버티고 훌륭한 집을 지을 때 일본 못지않은 세계적인 건축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